

# ‘보편 교양학’으로서의 수사학 재정립

-고전수사학과 현대 신수사학의 조명을 통하여-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주제분  
류

수사학, 철학교육론

주요  
어

고전 수사학, 신수사학, 논증론, 보편 교양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페렐만

요약  
문

수사학에 대해서는 편견들이 많다. 플라톤의 철학의 수용과정에서 한 쪽 측면만 강조되어온 것이 그 뿌리다. 플라톤은 수사학 일반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의 수사학만을 부정하는 것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수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수사학의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그 특징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학은 ‘표현’이라는 한 쪽 측면만을 강조한 채 발전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수사학에서 다루는 ‘통념’이라는 진리는 현대에 들어와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 핵심이 된다. 페렐만은 더 나아가 변증론, 수사학, 논증론 등을 통합하는 신수사학을 발전시킨다. 이들의 수사학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면 수사학을 통합적 ‘일반 교양학’으로 자리매길 수 있다.

## 1. 들어가면서

학문사를 보면 문화와 역사라는 환경 속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발전·변화하는 것이 학문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수많은 학문들 중 유독 편견에 지배되어 오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수사학이다. 예를 들어 국어사전에 따르면 수사학은 수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수사는 “말이나 문장을 꾸며서 보다 묘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옛센스국어사전』) 이것은 수사학을 ‘기교적 표현(eloquentia)’에 국한해서 내린 편향적인 정의에 불과하다.<sup>1)</sup> 더 나아가 수사학은 말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군더더기, 말의 현란한 포장, 결혼식장에서의 형식적인 주례사나 오늘날 감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웅변술, 심지어 청자를 현혹하는 기법 등과 관련된, 학문 같지 않는 학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의 말은 한갓 수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허한 수사만을 남발하고 있다’ 등의 표현에서처럼 ‘수사’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걸치레의 표현’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연 수사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당한가를 따져보지 않는 한, 현대에 와서 다시 발전하고 있는 수사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수사학에 대한 편견의 뿌리를 살펴보고 현대에 와서 부활하고 있는 수사학이 나아가야 할 복권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사학이 기여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고전 수사학의 혼돈과 정립

### 1) 수사학에 대한 편견들의 역사적 뿌리와 교양학으로서의 수사학

우리가 수사학을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고대 희랍 철학의 선구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고대 희랍의 소피스트들이 진리와는 상관없이 법정 논쟁에서 승리만을 목표로 보수를 받고 교육·활동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기법이 바로 수사학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플라톤, *Sophistes*, 특히 268d 계속. 그리고 *Gorgias*, 462b 계속).

먼저 소크라테스가 수사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그는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와 논쟁을 하면서 수사학을 한 마디로 “아침”(잔피부르기, *kolakeia*)으로 특징지었다(플라톤, *Gorgias*, 462b 계속). 그래서 그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훌륭한 것, *kalon*)과 아름답지 못한 것 중 아름답지 못한 것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플라톤, *Gorgias*, 462b 계속).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았던가? 그는 아테네의 어린이 히포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마치 물건을 파는 상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물건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건을 팔 듯, 소피스트들은 화술이 청자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화술을 판다고 비판하였다(플라톤, *Protagoras*, 313d 계속). 다시 말해 옳음, 선, 진리 등과는 무관한 채 청자에게 말이 먹혀드는지 아닌지 하는 효력만을 주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수사학을 진실과는 무관하게 걸만 화려하거나 말의 효력만을 추구하는 화법으로 이해했던 부분만 강조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이 오늘날 수사학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sup>2)</sup>

1) 현대의 대표적인 신수사학자인 페렐망은 수사학을 멋진 표현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정의를 완전히 부정한다. 참조: Chaim Perelmamm, 1994, 63쪽.

하지만 과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수사학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는가? 플라톤의 수사학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한 마디로 하면 “말을 통한 영혼의 인도”다(플라톤, *Phaidros*, 261a). 그의 수사학에 대한 규정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종교도 매력적인 연설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화자의 오성이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아는 것이다.<sup>3)</sup>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수사학을 진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지만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수사학 일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가 사용한 수사학만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진정한 의미의 수사학은 진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그동안의 학문사에서 간과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수사학을 정의한 “말을 통한 영혼의 인도”가 뜻하는 바도 ‘화자의 말을 통해 청자가 올바른 것을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에 플라톤에 있어서 수사학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인 교육적 기능이 그 핵심이었던 것이다.

또한 수사학이 ‘진리’와의 연관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사학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대표적인 수사학자인 고르기아스의 수사학에 대한, 말에 대한 생각을 직접 살펴보자.

말(logos)은 위대한 발동자(發動者)다.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잘 보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로써 말은 신적은 활동을 해낸다. 그러면서도 말은 경악을 잠재우고 고통을 가라앉히며 기쁨을 선사하고 감동을 증가시킨다.<sup>4)</sup>

위의 인용에서 상대를 현혹해서라도, 즉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수사학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오히려 고르기아스는 인간에게 있어 말이 갖는 기능적 영향력, 위의 인용문에서는 특히 장점만을 강조했을 뿐이다. 비록 위의 글에서 말의 위험성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약품이 어떤 환자에게는 좋은 약이 되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독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의 기능이며 가치중립적인 특성이다. 말의 기능에 있어 ‘설득’이라는 기능을 주목하는 수사학을 ‘현혹의 기술’로만 보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두 번째 것은 아테네의 소년 히포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찾아가려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 이유를 묻는 대목에서 발견된다. 소크라테스는 그 소년에게 히포크라테스(의사)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고 폴리클리트와 피디아스(조각가)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이지만, 소피스트의 대가 프로타고라스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소피스트가 되기 위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플라톤, *Protagoras*, 310b 계속). 이에 대해 소년이 아니라고 답하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소피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단적인 예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발견된다: “파우스트: 소피스트, 너는 거짓말쟁이야.” (*Faust* I, V 3050)

3) Platon, *Phaidros*, 259e. 참조: *Phaidros*, 260e: “스파르티인의 말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파악 없이는 진정한 수사학은 없고 영원히 없을 것이다.”

4) 재인용: Th. Buchheim(Hg.), *Gorgias von Leontinoi. Reden, Fragmente, Testimonien*, Hamburg 1989, 82 B 11, 8.

히포크라테스, 아니면 내가 프로타고라스에게서 배우는 것이 앞에서 말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법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께서 배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분야들을 배우는 이유는 전문가로서 그것을 연습하는 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자유로운 시민에게 적당한 보편적인 교양 (paideia)을 위한 것이지.<sup>5)</sup>

여기에서는 수사학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성인에게는 필요한 보편적인 교양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의 학문영역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교양’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추구하는 개별학문, 전공과목이 아니라, 기초학문, 일반교양 과목에 속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것은 그 후 중세시대에 수사학이 왜 다시 교양학<sup>6)</sup>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시사한다.

## 2)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과 세 가지 설득력의 근원

그 후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최초로 하나의 학문으로 안착시킴으로써 수사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다. 수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수사학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는 세 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강조하면서 그 특징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가) 로고스(logos):**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와의 관련성을 소홀히 한 소피스트들의 수사학과 절대적 진리만을 추구한 플라톤의 변증론이라는 두 극단으로부터 중도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수사학과 관련된 진리가 어떤 유형의 진리인지를 밝혔다. 그는 수사학이 필연적 진리에 대한 진술은 다루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개연성 높으며(hos epi to poly) 신뢰할 만한 진술과 연관된 모든 영역에 대해 적용된다고 말함으로써 수사학은 진리와 무관하다는 편견을 제거하면서 수사학이 다루는 진리의 특성을 정립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Rhetorica*, I 2, 1357a2 계속). 그에 따르면 수사학은 필연적 진리에 대한 탐구를 특징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사회와 관련지어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주장들이 제시될 때 그 중 보다 더 신뢰할 만한 주장을 밝혀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는 현대의 수사학이 지향하는 진리관의 뿌리가 된다. 즉 수사학이 필연적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와 직결된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학의 의의를 재조명해야 한다. 또한 필연적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는 뒤에 다룰 것이다.

**나) 에토스(ethos):**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용, 선한 의지 등 도덕적 덕목이 수사학에 있어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아리스토텔레스, *Rhetorica*, I 1, 1355a31). 이 때문에 수사학은 그에

5) Platon, *Protagoras*, 312a 계속. 'paideia'에 대해서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논자는 E. Heitsch와 C. W. Mueller의 번역 'allgemeine Bildung', 즉 '교양'이 오늘날 의미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Platon, *Werke*, VI 2, *Protagoras*, hrsg. von E. Heitsch und C. W. Mueller, Goettingen 1999.

6) 논자는 중세 대학에서 성행했던 일곱 개의 자유 교과목(septem artes liberales)를 '교양학'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 교과목들을 나타내는 'liberales'는 교과목을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도 하지만 '자유인을 위한'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유인이란 바로 '교양'을 갖춘 자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교양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수사학을 정의하고 있는 앞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게 따르면 윤리학과 정치학에 속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훌륭한 변론가는 선한 성품의 사람이다. 말을 잘 하는 능력과 말을 하는 의도를 구분함으로써 수사학에 도덕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플라톤이 지적했던 소피스트들의 수사학과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는 화자의 도덕적 근거는 화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Rhetorica*, II 1, 1378a8). 이는 설득이란 한갓 멋진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화자에게 갖는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한다. 그가 “신뢰감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서(아리스토텔레스, *Rhetorica*, I 1, 1356) 말의 사회적 관점, 사회학적 조명이 수사학의 탐구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다) 파토스(pathos):**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 청자의 심리적 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추론을 할 줄 알고 성격과 덕망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감정의 움직임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설득수단을 잘 이용할 수 있음”을(아리스토텔레스, *Rhetorica*, I 1, 1356a) 주목하고 『수사학』 2권에서 분노, 너그러움, 두려움 등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인간의 유형,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는 수사학에서 탐구해야 할 파토스의 영역은 표현 자체를 넘어 ‘표현과 인간 심성과 상황’의 관계라는 점이 확립되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수사학자들이 파토스 중에서도 표현의 기법에만 주목한 것과는 달리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균등하게 설득력의 근원(pisteis)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학을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던 것이다. 수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와 같은 규정은 수사학을 ‘말의 현란함’이나 ‘말을 통한 기만의 기법’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수사학을 “표현”에 국한하여 정의내리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며, 특히 로고스와 에토스를 얼마나 간과해왔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설득력의 근원은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가지 설득력의 근원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해 보자. 우리사회에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바로 의사소통에 있어 로고스적인 면과 에토스적인 면이 심각하게 간과되어 있고, 파토스적인 측면이 표현에 있어 문체와 감정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sup>7)</sup> 한 공동체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궁극적으로 공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다. 논증적(로고스) 면은 의사소통에 있어 사실, 진리, 근거, 추론, 논증, 정당성 등을 말한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토론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올바른 공적 결정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올바른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정당한 주장은 적절한 근거를 가진 말이다. 필연적 진리와 무관한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형식 논리학이 아니라 수사학이다.

의사소통, 토론이란 한 공동체에서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행위다. 모든 사회적 행위에 대해 윤리적(에토스) 면

7) 수사학에서 설득의 세 가지 근원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특히 수사학에서 파토스를 아름다운 표현, 감동적인 표현 등 시학적 관점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줄고, 2003-1을 참조.

이 고려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다. 의사소통의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를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은 자제해야 한다.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기준의 하나는 바로 진실성이다. 거짓말, 허언, 거짓 약속, 기만, 자기 생각과는 다른 말 등을 하는 것은 공적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다. 술수,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 등은 한 토론회에서는 발언자를 승리하게 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발언자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해 설득력을 저해한다.

이 두 측면은 우리사회의 의사소통에 있어 발견되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종래의 수사학 연구가 특히 이 두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파토스적인 측면도 표현 자체에만 주목했을 뿐 표현과 인간의 심성과 상황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간과되었다. 현대수사학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려면 바로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할 것이다.

### 3) 수사학, 변증론, 논리학, 오류론

수사학이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변증론(dialektike), 논리학과 수사학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들의 관계는 고중세 철학 전반을 통해 결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에는 변증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그러한 것과 그러하지 않는 것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예를 들어 『소피스테스』에서는 “유에 따라 나누고 동일한 형상(tauton eidos)을 다른 것(heteron)으로,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변증론에 속한다고 하였다(플라톤, *Sophistes*, 253d). 이러한 의미에서 변증론은 플라톤에 있어 논리학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후 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의 선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들을 분류하면서 설득의 학문인 수사학을 제작지(制作知)의 학문에 포함된 하나의 학문으로 규정하면서(아리스토텔레스, *Metaphysica*, 1025b25) 수사학의 아버지가 된다. 이와 함께 그는 필연적 진리에 대한 증명(demonstration)을 다루는 논리학과 통념(endoxa)을<sup>8)</sup> 다루는 변증론을 (Aristoteles, *Topica*, I 1, 100a20 계속) 모든 학문의 예비학, 도구(Organon)로 규정함으로써 수사학과 이들을 차원적으로 완전히 구분한다. 비록 그가 수사학을 변증론과 짝을 이루는 분야라고 했지만 말이다(아리스토텔레스, *Rhetorica*, I 1, 1354a). 위에서 기술한 수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있어 아쉬운 점이다. 논자가 플라톤에게서 발견하고 강조한 보편적 교양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하나의 개별학문으로 정의 내려졌던 것이다. 한편 그의 오르가논에는 논리학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퀘변론’이라고 불리는 오류에 관한 저서인 ‘소피스트적 논박에 관하여’(de sophisticis elenchis)도 포함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학적 분류는, 특히 수사학, 논리학, 변증론에 대한 분류는 다른 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철학사학자 중 가장 오래 된 학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디오게네스 라에티우스는 스토아철학자들이

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통념이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혹은 현인들에게, 요컨대 그들 모두에게 혹은 그 대다수에게, 혹은 가장 유명하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다(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16쪽).

이 분야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가 전하는 바로는 스토아철학자들 중 몇몇은 논리학(logikon)을 두 개의 분야, 즉 수사학과 변증론이라고 보았다고 한다(위르스, 1998, 41쪽). 그리고 그들은 수사학과 변증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들은(스토아철학자)은 수사학이 연설(logoi)에서 잘 하는 말(legein)에 대한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변증론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에서 논증함에 있어 올바른 대화에 대한 학문이라고 설명한다.<sup>9)</sup>

여기에서는 수사학이 화자와 청자가 결정된 일방적인 연설과 관련되어 있다면 변증론은 한 사람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쌍방적인 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 다 논리학에 속함으로써 진리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논리학, 변증론, 수사학에 대해 스토아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이해했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적 분류가 나름대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완벽한 학문정의라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터넷 등을 통해 쌍방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진 오늘날, 연설, 담화 등에서는 수사학이, 토론, 대화 등에서는 변증론이 주요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

이번에는 오류론을 들여다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론은 소피스트들의 켈변론,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이다. 우리가 소피스트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소피스트의 수사학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그들의 진리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소피스트인 프라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로 대변되듯 소피스트들은 인간과 무관한 절대진리를 부정하였다는 점과 그 당시 법정 논쟁에서 최종 판단자들이 바로 시민들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그 어떤 진리도 인간과 무관한 진리는 없다는 소피스트들의 생각과 인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에서 우리가 최소한 인정해야 하는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Die Kunst, Recht zu behalten*)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오류들이 오히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우리는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논리학은 객관적 진리를 알아야 하고 켈변론은 거짓명제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둘 다 부정하고 토론에서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오류가 토론술이라고 주장한다(쇼펜하우어, 1997, 115-116쪽).

그러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철학자들로부터 그토록 높이 평가받았던 ‘필연적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프레게의 진리이론에 힘입어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필연적 진리를 논리적 연산자의 결합방식에 의존함을 밝혔다(비트겐슈타인, 1991, 5.101).

P Q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 T	T	T	T	T	F	T	T	T	F	F	F	T	F	F	F	F
T F	T	T	T	F	T	T	F	F	T	T	F	F	T	F	F	F
F T	T	T	F	T	T	F	T	F	T	F	T	F	F	T	F	F
F F	T	F	T	T	T	F	F	T	F	T	T	F	F	F	T	F

위의 도표에서 경우 1은 동어반복, 경우 16은 모순을 말하는데, 논리학에서 말하는 필연적

9) F. Jueress, 1998, 7, 42

진리란 바로 동어반복을, 필연적 거짓은 모순을 뜻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경우를 한계 경우(Grenzfall)라고 하였다(비트겐슈타인, 1991, 4.466, 5.152). 이로써 그는 논리학은 세계와 무관한, 하지만 세계와 세계 바깥을 한계 짓는 경계선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필연적 진리란 세계와 무관한 진리란 뜻이다. 이는 필연적 진리가 개연적 진리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 있는 어떤 오묘한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니라 한갓 언어의 결합방식에, 정확하게 말하는 기호들의 형식적 결합방식에, 불과함을 말한다. 이는 진리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필연적 진리를 탐구하는 논리학이 개연적 진리와 연관 있는 수사학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한갓 착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다시 오류론으로 되돌아오자.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란 무엇인가? 오류란 “겉으로는 타당한 논증이지만 속으로는 부당한 논증”이다(줄저, 2000-1, 208쪽). 여기에서 타당한 논증이란 주장과 근거 사이의 필연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한갓 형식논리학적 입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오류론에 대해서도 다시 고찰해야 한다. 즉 필연적 진리가 아닌 개연적 진리를 필연적 진리로 보는 것이 잘못일 뿐 개연적 진리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 2. 현대의 신수사학<sup>10)</sup>에서의 수사학, 논증론, 변증론의 관계

법학자 페렐만은 올브레히트 티테카와 함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법리와 진실을 근거로 공방을 벌이는 것에 논쟁의 뿌리를 찾아 논증론과 수사학을 전개한다(페렐만/올브레히트 티테카, 1958). 그에게 있어서 논증론은 수사학과 동일하다. 그는 수사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수사학은 꾸며지고 치장된 문체에서 아름다운 어구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수사학은 대화나 글에서 실행되는, 법학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논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나는 설득에 대한 기술이다. 이것은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다. 즉 그것은 법학을 공부할 때 논리적 추론에 대한 전통적인 훈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변증법적 증명’이라고 부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부로 완성하는 일이다.<sup>11)</sup>

위의 글에서 페렐만이 추구하는 신수사학에 대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문체론을 중심으로 표현을 강조한 수사학의 경향을 부정한다. 이것은 명증적 진리, 명석 판명한 지식을 추구했던 근대철학과 함께 발생한 근대 수사학의 편향된 특징에 불과하다. 이는 진리 및 사고와 언어 및 표현을 단절시킴으로써 수사학, 논리학, 변증론 등을 분리했던 고대의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다. 그동안 학문들의 발전과정에서 분리되어버린 로고스(logos)의 양극점인 이성(ratio)과 담화(oratio)를 다시 결합하는 것에서 신수사학은 시작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우선 “지난 3세기 동안 서구 철학에 흔적을 남겨 온 데카르트에 기인하는 이성 및 추론의 개념과 단절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페렐만/올브레히트 티테카, 1958, 1쪽). 그래서 그는 순수이성의 직관을 통해 도달하는 순수진리에 대한 인식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긴밀한 진리를 드러내는 수사학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10) 현대 신수사학의 특징들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줄저, 2002-2를 참조하라.

11) C. Perelman, 1994, 63쪽.

둘째 수사학은 논증을 함에 있어 설득에 관한 학문이다. 이는 수사학을 논증, 논리학, 변증론 등과 무관한 학문으로 보는 편향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수사학이 ‘설득’을 지향한다면 이는 글쓴이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안주할 수 없다. 즉 수사학이 ‘표현과 생각’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설득’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은 바로 대화 속에서 청자에게, 글 속에서 독자에게, 한 명제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밝히는 논증에 있다. 즉 수사학은 ‘표현과 청자, 그리고 나아가 내용’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사학은 하나의 학제적, 통합적 기초학문, 교양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셋째 그동안 논증·추론의 훈련을 논리학으로 했던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삶, 통념, 상식 등과 무관한 형식적 타당성과 증명을 추구하는 논리학에서는 누군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 논증(Argument)이 핵심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인간적(unpersoenlich)인 영역에서는 설득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 그는 논증(논변: Argumentation)을 한 마디로 “청중과 연관되어 발전한다”고 특징짓는다(페렐만, 71쪽, 85쪽 계속). 그래서 타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을 추구하는 논증(논변: Argumentation)은 형식논리학보다는 변증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기된 어떤 문제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들, 이야기 실마리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다양한 주장들과 나름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등장하는 대화를 탐구하는 변증론에서 논증(논변: Argumentation)과 설득, 그리고 의사소통의 그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은 절대적 진리, 필연적 진리를 추구했던 근대철학에 대한 도전이자 표현, 문체의 수사학의 나태함에 대한 준엄한 의무부여다. 형식논리학 입장에서 논증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 무슨 이유로 그것을 제시하는지 관계없이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논증의 타당성은 오직 논증을 이루는 명제들 사이의 형식적 관계에, 즉 기호들의 결합관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논증 자체는 대화나 청중,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논증이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논증 자체는 그러한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존립한다. 하지만 페렐만은 우리의 추론이 영원히 현존하거나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어떤 것에 접근하거나 일치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다. 이 말은 명증적(evident) 진리로서의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명석판명한(clara et distincta) 진리와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직접 경험에 대한 비판이다. 추론의 척도도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적인 성격에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적인 기준이나, 경험적 자료들의 축적 자체가 갖는 개연성이 아니다. 논증 행위의 목표는 우리들의 통념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수사학은 의사소통의 이론이자 합리성 수용 이론이 된다. 전통적 의미의 논리학과 수사학의 분리의 극복을 추구하는 “신수사학”은 형식논리학과는 달리 논리적 증명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하고, 고전적 수사학과는 달리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상호주관적인 설득력의 영역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신수사학은 담론공동체 속에서 합리적인 설득력을 추구하는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한다.

하지만 신수사학에서도 논증론 일반에서도 진리의 문제와 관련지어 의문의 여지는 남는다. 신수사학은 형식논리학과 필연적 진리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형식논리학을 화용론적으로 응용한 것인가? 아니면 형식논리학적 추론의 정당성마저도 논증론에 의해 해명되는가? 이는 이 글에서 다룰 수 없는 또 다른 주제다.

### 3. 결론과 종합

이 글은 우리가 ‘수사학’에 대해 그동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대철학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간과했던 ‘수사학’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현대 수사학의 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설득의 학문’인 수사학을 ‘보편 교양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열고자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수사학이 주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sup>12)</sup> 이 글에서 논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학이 문체론 등 표현에만 치중한 것은 한 시대에 국한된 경향이었을 뿐 결코 수사학 일반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 없다.

둘째, 수사학은 진리와 무관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수사학과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만만이 아니다. 플라톤에 있어서도 진정한 수사학은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 형식논리학이 다루는 필연적 진리와 수사학에서 관심을 갖는 개연적 진리 또는 상식, 통념은 그 의미가 다를 뿐 그 가치에 있어 우월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사회와 연관된 생활세계적 진리와 타자의 이해와 동의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에서는 형식논리학은 무기력할 뿐 수사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학은 하나의 전문적 지식인에게 필요한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보편적 교양에 속한다.

넷째, 수사학은 개별학과에서 탐구하는 분과가 아니라, 사고와 언어, 논리학, 변증론, 표현의 문제를 주목하는 좁은 의미의 수사학 등이 결합된 하나의 보편 교양학이다.

다섯째, 수사학이 의사소통학으로 발전할 때만이 우리사회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였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세 가지 설득력의 근원에 대해 우리사회와 결부지어 깊이 연구해야 한다.

---

12) 학제적 의사소통학으로서의 수사학과 의사소통능력으로서의 교양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줄고 2003-1을 참조.

## 참고문헌

- Aristoteles, *Metaphysik*. hrsg. von F. F. Schwarz, Stuttgart 1970.
- Aristoteles, *Rhetorik. Uebers. mit einer Bibliog. Erl. und einem Nacho. von Franz G. Sieveke*, 5. Aufl., Muenchen 1995.
- F. Juerss(Hg. und uebers.), *Diogenes Laetios, Leben und Lehre der Philosophen*. Stuttgart 1998.
- Chaim Perelmamm, *Logik und Argumentation, herausgegeben und uebersetzt von F. R. Varwig*, Weinheim 1994,
- C. Perelman, L. Olbrechts-Tyteca, *La nouvelle rhetorique, Traite de l'argumentation.*, Paris 1958.
- Platon, *Sophistes*. in: Saemtliche Werke, I-X, ed. K. H. Huelser, Frankfurt 1991.
- Platon, *Gorgias*. in: Saemtliche Werke, I-X, ed. K. H. Huelser, Frankfurt 1991.
- Platon, *Phaidros*. in: Saemtliche Werke, I-X, ed. K. H. Huelser, Frankfurt 1991.
- Platon, *Protagoras*. Platon, Werke, VI 2, Protagoras, hrsg. von E. Heitsch und C. W. Mueller, Goettingen 1999.
-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김재홍 옮김, 까치, 1998.
- L.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옮김, 천지사, 1991.
- A. 쇼펜하우어,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김재혁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D. 슈바니츠,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 인성기 옮김, 들녘, 2001.
- J. 크로스하이트,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철학과현실사 2000년, [=2000-1]
- 하병학, 토론하는 한국사회(『철학과현실』 2000년 여름호, 철학문화연구소, 186-198쪽). [=2000-1]
- 하병학, 학제적 학문탐구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논증론(논변론)(『철학연구』 철학연구회, 2002년 가을호 61-73쪽). [=2002-1]
- 하병학,인문학 위기 극복의 한 모형으로서 학제적 교양과목과 철학의 치열성(『철학과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02년 여름호 186-194쪽), [2002-2]
- 하병학, 학제적 교양과목과 의사소통(『철학탐구』 제15집, 중앙철학연구소, 2003년, 297-315쪽). [=2003-1]
- 하병학, 중등 도덕교육과 토론(『도덕교육』, 36호, 전국도덕교사모임 편, 2003년, 101-114쪽). [=2003-2]
- 『옛센스국어사전』, 이희승 감수, 민중서관, 제3판.

## **Rehabilitation der Rhetorik als der allgemeinen Disziplin der Bildung**

Byung-Hak, Ha

Ueber die Rhetorik hat man ueblich dasjenige Vorurteil, dass sie eine Technik des Betrugens sei. Dieses Vorurteil stammt aus unserer einseitigen Rezeptionsgeschichte der platonischen Philosophie. Aber die Wahrheit ist es, dass Platon nicht die Rhetorik ueberhaupt unterschuetzt, sondern nur die sophistische Rhetorik. Nach Platon hat die Rhetorik mit der allgemeinen Bildung zu tun. Aristoteles definiert die Rhetorik als die Wissenschaft der Wahrscheinlichkeit, die im modernen Sinn Alltagswahrheit ist. Aber im Lauf der Entwicklung der Rhetorik sind die logische Seite und die ethische Seite der Ueberredung und Ueberzeugung vernachlaessigt worden, die Aristoteles in der Rhetorik mit der pathischen Seite zusammen betont hat. Perelman will die Rhetorik zur Argumentationstheorie rehabilitieren, die m.e. eine interdisziplinare Grundwissenschaft zu verstehen ist.

Key Words      Klassische Rhetorik, Neue Rhetorik, Argumentationstheorie, Wissenschaft der allgemeinen Bildung, Platon, Aristoteles, Perelman

K C I